

염홍섭 서산 회장, 조선대 발전기금 1억원



염홍섭(사진 오른쪽) (주) 서산 회장이 29일 조선대(총장 서재홍)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염 회장은 지난 2002년 조선대에 발전기금 3억원을 기탁, 조선대는 당시 신축한 중앙도서관 3층 멀티미디어실에 최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138석 규모의 시암 인터넷실을 개설해 컴퓨터 140여대를 설치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한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컴퓨터 교체와 성안인터넷실 관리 비용으로 1억원을 선뜻 기탁한 것이다.

염 회장은 또한 조선대학교 유니버시티 파크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한수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또 2008년에는 (사)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가 18년 동안 운영해온 금요초연수회를 확대발전한 한국평생교육 경영자과정용 조선대에 개설하는 협약 체결식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조선대와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왔다.

염홍섭 회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서산을 이끌고 있는 지역 경제계의 원로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 왔다. /채희홍기자 chae@kwangju.co.kr

문정현 신임 광주지방변호사회협회장

“신뢰 받는 시민의 변호사 되겠습니다”

“변호사들의 부도덕이나 자질 논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법제사 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등 시민들이나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에 나서겠습니다. 다만 변호사 피습사건 등 법조 3분의 한 축인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변호사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8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52대 회장에 선출된 문정현(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자정 노력’과 동시에 ‘위상 강화’를 향후 변호사회 운영의 양축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본격적인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입 회원들에 대해 사건 수임 및 처리,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문 변호사는 “수도권보다 지역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의 사회 참여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변호사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으며, 변호사도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라며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문 변호사는 광주고교와 전남대 법과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1994년 판사로 임명돼 7년간 광주지법, 목포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1년 변호사를 개업한 뒤 지난 2007년 법무법인 바른길을 창립했으며, 광주지방국제청 국제심판위원, 광주문화재단 감사, 전남



도·영암군·전남대 교문 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변호사회는 문 변호사를 비롯한 제1부회장 노강규 변호사, 제2부회장 전호현 변호사, 제1총무이사 진용태 변호사, 제2총무이사 김지현 변호사, 재무이사 임진석 변호사, 공보이사 강성두 변호사 등 12명의 집행부 임원진도 구성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송덕고-美 명문고 ISA 자매결연



송덕고 박판우(왼쪽에서 네번째) 교장과 미 ISA 캐시 바이어서(오른쪽에서 세번째) 교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ISA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덕고 제공>

자율형 사립고인 송덕고등학교(교장 박판우)는 최근 미국의 명문고교 ISA(International School of the Americas)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노스이스트 교육구에 있는 ISA는 로버트 리 고등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영재교육 매그넷 스텔로, 동아시아 관계를 중점으로 가르치는 명문 고교다.

자매결연은 송덕고가 자사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2주일간 학생 21명 등 총 23명이 ISA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두 학교는 앞으로 수업 체험, 홈스테이 등 학생 문화교류 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판우 교장은 “학생들이 미 명문고에서 직접 수업을 참관하고 홈스테이를 경험하면서 자질을 많이 받았다”며 “또 스탠포드·UC 버클리 등 유명 대학과 NASA를 방문해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싸이-펠르맹 장관 프랑스서 만남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6)가 한국계 프랑스 장관인 플로르 펠르맹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 장관과 프랑스에서 만났다고 29일 밝혔다.

싸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펠르맹 장관과 만나서 반가웠다”며 “우리가 같은 나라 출신이어서 자랑스럽다”는 글과 함께 펠르맹 장관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갑남스타일’로 전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싸이와 한국인 입양인 출신으로 처음 프랑스 장관에 오른 펠르맹 장관의 만남은 우연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지난 26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NRJ 뮤직 어워즈 2013’ 참석 차 이곳을 방문했으며 펠르맹 장관은 같은 시점에서 열린 국제음악박람회 ‘미렘’에 참석하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는 프랑스 일정을 마친 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행사와 방송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철수, 선악 이분법 구도 넘어야 성공”

강준만 전북대 교수 ‘중오 상업주의’ 출간

“안철수가 어떤 방식으로 재도전하건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은 민주당을 함몰시킨 중오 상업주의를 확실하게 넘어서는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재도전’ 행보에 대해 이 같은 조언을 내놨다.

18대 대선에서 안 전 교수를 공개 지지했던 강 교수는 신간 ‘중오 상업주의’에서 ‘중오 시대’를 화두로 정계 판도를 분석했다.

선악 이분법으로 대중의 증오를 일으켜 이를 정치 동력으로 삼는 ‘중오 상업주의’가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전 후보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게 강 교수의 진단.

그는 “기존 중오 패러다임에 갇힌 의식과

행태를 고수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도와 법을 바꾸고 뒤집어도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안철수의 재도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새 정치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아이디어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의식·행태·문화”라면서 “의식·행태·문화를 시종일관 ‘중오의 종언’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새 정치의 토대가 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도 중오 상업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양극화되는 과정을 과잉 정치화, 집단 극화, 초기 효과, 대표성의 왜곡 등 네 가지 단계로 분석하고, 인물 대신 목적



지향형 정치 참여로 전환하고 당파적 이슈 대신 초당파적 이슈에 집중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폭스 뉴스의 ‘우리 대 그들’ 전략, 미국 빈민 운동가 솔 알린스키의 사상 등 다양한 정치 이론을 토대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다. 인물과사상사, 264쪽, 1만3000원. /연합뉴스

해남출신 윤금초 시인 ‘한국시조대상’

해남출신 윤금초 시인의 ‘큰기러기 필법’이 제3회 한국시조대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29일 “윤금초 시인의 시조는 한국 현대시조의 천일염으로, 정제미와 고결한 맛이 넘친다”고 평했다.

세계시조사랑회 주최로 2008년까지 진행된 한국시조대상은 상을 주관하던 박구하 시인이 별세하면서 중단됐다가 시조시학자 주희로 재개됐다. 상금은 1000만원, 시상식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박성천기자 kzipark@



김삼열 목포항만물류협회장 취임

제23대 목포항만물류협회장으로 김삼열(59) 목포신항만부사장이 29일 취임했다.

중앙 정부의 인택을 총동원, 목포항 개발과 국가 재정 확보에도 발벗고 뛰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목포지방 해양항만진흥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한 해양항만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유은학원 서구동문회, 사랑의 쌀·위문품



학교법인 유은학원 광주 서구동문회(회장 이기섭)는 29일 서구 장애인협회와 서구 장애인가족복지회, 양3동주민센터 사랑의 쌀 뒤에 쌀과 농산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유은학원 총동문회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폐암 건강강좌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국훈)은 최근 ‘폐암환자를 위한 가족 프로젝트: 따뜻한 숨쉬기’라는 주제로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건강강좌를 가졌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광주일곡병원 ‘사랑의 헌혈’ 행사



광주일곡병원(대표원장 정동원)은 최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일곡병원은 매년 두차례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녹색곤충주식회사 출범



전남녹색곤충주식회사 출범식이 29일 오후 전라남도 생물방제센터 교육관에서 열렸다. 배운태 전남행정복지시와 허남석 곡성군수, 송영무 순천대학교총장 등 축하 덕 자르기도 있다. <곡성군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2월 4일(월) 오후 5시 30분 유명회관 062-512-5574.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욱) 월례회=2월 5일(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진주강계 광주전남 시·군·구 중회 회장단 회의 개최=2월 2일(토) 오전 11시 회관 3층 대강당 062-228-3368.

알림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중환자복지재단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중환자복지재단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심폐 결핵,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

1095. ▲비물기 가정상담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늘 기본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종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족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55세 이상 가족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민오, 한충 회원=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중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센터 강

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무료)=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급성 분석 등. 011-607-4614.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30세 이상 부부, 매일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부음

▲이준범씨 별세 제일·재속씨 부친상=발인 3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백귀순씨 별세 문준남·남기·태선·정자·정숙·정희·금희씨 모친상=발인 30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정순씨 별세 이영대·영환·영순·영선씨 모친상=발인 3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대휘씨 별세 계민·치현·치선·행식·철홍·기용·행녀씨 부친상=발인 3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최덕익씨 별세 김형준(삼성전자)·은경·은아씨 모친상 윤평화(백두산업)·강민석(운수업)씨 부모상=발인 3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including details about the serv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